
나의 등은 휘었고, 내 마음은 곧다

이 유 빈

말은 힘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만 해도 말조심을 주제로 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의 선조 시대 때부터 강조되어 왔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모두 말의 영향력과 이에 따른 결과를 형용하는 속담이다. 실제로 말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기도 한다.

갓 어린 티를 벗어난 14살, 나는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았다. 그 당시 나에게 척추 측만증이란 첫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된 체육 교과서의 일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단순했던 내 생각과 달리 측만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내 갈비뼈를 짓누르는 보조기를 온종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은 견디기 어려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튀어나온 내 보조기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피곤했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나는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측만증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너무 쉽게 본 것이 문제였을까, 측만증을 앓고 매사에 거북이 등딱지와 함께하는 내가 견뎌야 할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버거웠다. “너 그러면 이제 등 병△인 거네.” 체육 시간을 준비하며 보조기를 푸르던 나에게 친구가 비웃으면서 말했다. “야, 애 등 만져봐. 신기하잖아.” 교실에 앉아서 필기하던 나에게 친구가 그 애의 친구를 데려와서 한 말이다. 그때 깨달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몸에 문제가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측만증을 앓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신기하고도 불쌍한 존재, 조소와 동정의 사이, 딱 그 정도로만 보인다고. 절망스러웠다. 살면서 단 한번도 나 자신을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장애의 범주에 포함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서는 그저 충격이었다.

친한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이후, 나는 많이 변했다. 당당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의기소침하고 조용하게 나날을 보냈다. 때로는 왜 나만,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하였다. 뼈쩍 마르고 뼈뜰어진 내 징그러운 등을 누가 보고 이야기 할까 봐 한여름에도 겹옷을 입고 다녔다. 내가 그 애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3년이였다. 문제는 우습게도 내 뼈뚫어진 등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데 나는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자책했다. 그 당시의 나는 이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렸고 이를 자각하고 극복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참 가혹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야기거리나 웃음거리로 받아들여진다. 다들 웃어넘기는데 나만 웃어넘기지 못한다. 분명 나를 향한 말도 아닌데 상처는 내가 받는다.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아왔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장애인을 비웃는 말이 자주 오가는지. 쉬는 시간에 숙제하다가 들려오는 “너 장애냐”, “병△” 과 같은 소리, 그리고 잇따라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제는 내가 일어서서 이야기한다. 순전히 다른 친구가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 입을 연다.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그러자 조용해지는 교실과 일부 꼬덕이는 친구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동정 받아야 할 불쌍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뿐이다. 장애는 나쁜 것도 아니고 웃음거리나 장난의 주제가 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장난이라는 말로 ‘장애’, ‘병△’, ‘암’ 과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린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재미로 내뱉는 그러한 말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만약 나와 같은 아픔의 당사자나 그 아픔을 지켜본 사람이 듣게 된다면 잔인하게 들릴 것이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우리는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이다. 그렇기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잘못된 대우나 비하 발언은 없어져야 한다.

나의 등은 휘었다. 한때는 친구의 비뚤어진 말에 의해 내 마음도 함께 휘었다. 말은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존중하며 웃음거리로 치부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에 늘어나길 바란다.

나의 등은 휘었고, 내 마음은 곧다.